



백제금동불 광배(光背) 백제실에 전 시된 7세기 초 불상 광배(光背). 96년 부여 무소산에서 출토 첫 공개됐다. 삼국시대의 금동불 광배로는 유일한 유물이다. 백제의 정교한 세공술이 단연 백이다.



불교조각실 전시 유물들은 시대별·양식별로 전시돼 유물감상의 가능성과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있다. 대형불상이 전시된 큰 전시실(사진)과 금동불 등이 전시된 작은 전시실로 구분돼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관람객 발길잡는 '불심예심'

12일 신축 개관 국립중앙박물관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로 지난 6월부터 휴관에 들어갔던 국립중앙박물관이 경북공내에 신축박물관을 마련, 12일 개관식을 갖고 일반에게 공개했다.

2003년 용산에 국립박물관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될 새 박물관은 연면적 5천5백50여평, 전시면적 2천2백여평, 지상2층 지하1층으로 불교조각실, 선사, 원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실 등 18개의 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등 20개의 전시실에 모두 4천4백25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중 1천3백여점이 새로이 선보였다.

불교조각실 바로 옆 금속공예실도 2백여점의 불교유물을 전시하며 찬란한 불교문화를 선보였다. 이곳에는 청동 천후사 명부종(銘符鐘·국보 280호) 등 범종 11점과, 고려시대 금동석장머리 등 불교의식구 3점, 사리장엄구, 청동탑, 불경함, 호

특히 불교조각실은 이전의 전시 형태를 벗어나 시대별, 양식별(석가여래상, 아미타여래상, 약사여래상 등) 유물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예술품 감상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전시실 바로 앞 터치 스크린(Touch Screen)을 설치해 불교조각의 흐름과 금동불 제작법 등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이우성 국무총리, 김영수 문화체육부 장관, 정장모 국립중앙박물관장, 임창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인사와 관람객 3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교유물 시대·양식별 전시 이해도와 백제 금동불 광배 등 1300여점 첫 공개

전시된 작은 전시실로 구성됐다. 이들 유물중 그동안 부여박물관에서 전시됐던 '동양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금동미륵반가사유상(국보 83호)이 5년만에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관심을 끌었다.

신불상 등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또 백제실의 백제 금동불 광배(光背)는 이번에 처음 전시된 유물로 백제예술의 정수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영우 기자

단 신

경주남산 세계유산신청

경주 남산이 내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될 전망이다. '77문화유산의 해' 집행위 임희(위원장 한병삼)는 지난 9일 신라의 보고(寶庫)이자 수많은 불교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경주 남산을 내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병삼 위원장은 "남산은 전체가 불교유적으로 뒤덮여 있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문화유적지니만큼 지정을 신청할 경우 등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천관사 복원 지표조사

통일신라시대 화엄종의 첫 개창지로 전통 법맥을 이어 오고 있는 천관사 복원사업의 옛 가람지를 찾기 위한 정밀 지표조사가 실시된다.

장흥군은 지난 11월말 순천대 박물관에 용역의뢰, 이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97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서사 범종 원형보존

지난해 11월 포항시 남구 오서사에서 발견된 오서사에서 보관중이던 고려법종이 지난 4일 경주문화재연구소로 옮겨져 부식방지를 위한 원형보존작업에 들어갔다.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범종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 및 원형보존을 위한 작업을 실시 연구보존을 위한 코팅처리를 마친 뒤 다시 오서사에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미국종교학회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에서 학회(學會)의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며 홍보되고 있을까? 미국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 이하 'AAR')는 인터넷에서 가능한 학회 활동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이트이다.

사회·정치·경제와 개인·단체 등과 관련해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두고있는 AAR은 미국의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와 교사들이 만든 단체로 현재 1천5백여개 학교의 약 8천여명이 AAR 정식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AAR은 이들 회원의 연구활동을 위해 '게시판' '전자회의' '전자우편' '전자학회지' '관련 D/B 연동' 등의 메뉴를 개설해 놓고있다. '게시판'과 '전자우편'은 AAR 활동을 홍보하고 회원의 연구성과를 교류하기 위해 사용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자회의'는 각 회원의 연구성과 중에서 두드러진 주제에 대해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용된다.

또한 AAR이 제공하고 있는 '전자학회지' 관련 D/B 연동' 등의 서비스는 회원의 연구활동을 돕기도 하지만, AAR을 방문한 네티즌이 종교학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메뉴.

'전자학회지'는 글렌 E. 요름 교수(위티아대, 미)가 주관하고 있는 '전자학회지'에는 불교를 포함한 미국의 종교적 관심사를 주로 반영하고 있다.

'관련 D/B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웹미카일대학·신학교 연합회·미국신학도서관 등과 같은 미국의 주요 종교단체를 방문할 수 있다.

미국종교학회 주소는 <http://scholar.cc.emory.edu/scripts/AAR/>이다.

오종욱 기자

성보전시관 내년초 착공

해인사등 8곳 설계마쳐

해인사를 비롯한 8개 사찰의 성보전시관 건립 공사가 내년 초부터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용주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사찰은 설계와 공사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며, 내부문제로 전시관 건립계획에 다소 차질을 빚었던 용주사도 올해 안으로 설계작업을 마무리 짓는 등 예정대로 건립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성보전시관 건립대상 사찰들은 설계와 시공승인은 나왔으나 통괄기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빠르면 내년 2월중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사는 일단 오는 18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키로 했으나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동화시

길상암

山堂靜夜坐無言
(산당정야좌무언)
寂寂寥寥本自然
(적적요요본자연)
何事西風動林野
(하사서풍동림야)
一聲寒雁掠長天
(일성한안려장천)
(일성한안려장천)

虛空可量風可聚
(허공가량풍가계)
無能說盡佛功德
(무능설진불공덕)

고요한 밤 산당에 묵묵히 앉았으니

적요로움 가득 본연의 세계인데
무슨 일로 서풍은 건넛 불어
숲을 흔들며
장천에 거리기 거북거북이
무슨 소식인가.

허공도 가히 질 수 있고 바람
도 잡아낼 수 있으나
何事西風動林野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네.

참선삼매·초탈의 세계 노래

길상암의 이 주련은 깨달음의 순간을 알리는 호탕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고요한 밤 산당에 묵묵히 앉았으니'는 참선삼매의 경지다. 그 경지에서 본연의 세계를 적요히 비추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주

법계의 실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깨달음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와중에 서풍이 불어 숲을 흔들고 거리의 거북거북 소리가 들린다. 선에 몰입한 무아의 세계가 비실재의 세계라면 숲과 거리의 소리는 실재의 세계다. 초탈지경에서 문득 현상계의 일이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 그 현상계의 일이란 하나의 소식이다. '그것은 무슨 소



한국 사찰의 주련

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련의 서체는 경봉스님의 솜씨라고 전해진다.
(대구 덕은불교대 교수)

한국 사찰의 주련이 이번 회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삼성·삼무성'은 중도사상의 재천명

묘주스님 '해심밀경' 연구분석 발표

지난 6일 동국대에서 열린 인도 철학회 '제7회 정기발표회'에서 묘주스님(동국대 강사)은 논문 '해심밀경의 삼성(三性) 삼무성관(三無性觀)을 통해 삼성은 각각 자기 동일성을 띤 개별적 존재형태가 아닌 우리들의 관련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세가지 존재형태로 일체법이 삼성·삼무성의 이치를 갖추면서 동시에 일체법에 삼성·삼무성이 포섭된다고 주장했다.

묘주스님은 변계소집성(變計所執性·허망된 본체에 의해 실체로 착각하고 집착하는 것) 의타기성(依他起性·다른 것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속성을 지닌 법의 양상) 원성실성(圓成實性·완전히 성취되어 있는 참다운 실상의 법의 양상)의

관계에서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은 서로 연(緣)이 되어 생사에 끊임없이 이어지며, 의타기성은 현상계의 모든 법(유위법)을 총칭한 것이고 원성실성은 그 본체인 진이므로 이 둘의 관계는 불일불이(不一不異)하다고 설명했다.

또 삼무성인 삼무성(相無性) 생무성(生無性) 승의무성(勝義無性)은 각각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 원성실성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일반에게는 삼성과 삼무성이 대응관계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부정되는 것은 변계소집성뿐이며, 이는 법부들의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을 더할까 염려돼 삼무성을 내세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생활 속의 불교 102

보물 창고에 들어갔다가 빈 손으로 나올수야...

법요식 때마다 우리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때 쓰는 말이 '지심귀명례' 또는 '지심귀명'이다. 말 뜻은 '나의 신명을 던져 부처님의 교명(敎命)에 들어가 의탁한다'는 것이다.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는 게 귀명(歸命)이고 몸으로 부처님 전에 앞드리는 게 정례(頂禮)이다. 거기엔 귀의한다는 뜻의 나무(南無), '나'를 버리고 던진다는 뜻의 도아(度我), 조건없이 받고 따른다는 뜻의 신순(信順)이 포함된다.

그러니 지심귀명례 할 때의 그 마음 그 뜻은 예사롭지 않다. 적어도 목숨을 버릴 각오로 믿고 따름을 말한다. 사무치고 거들 사무치는 마음, 목숨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을겠다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 불보살을 만나게 되는 인연이 얼마나 희유한 일인지, 불가에서는 이를 눈 먼 거북이가 나무 판

매기를 만나는 격에 비유한다. 바다에 한 눈 먼 거북이가 살고 있는데 이 거북이가 1백년에 한번씩 물위로 떠올라 숨을 들이 쉰다. 그때 망망대해를 떠돌던 널판지의 용이구멍으로 거북이가 고개를 내미는 것만쯤이나 어렵다는 것이다.

확률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다. 그렇게 어렵사리 사람의 몸을 받았고 다시 불보살을 만났으니 어찌 그 기회를 이 목숨 때문에 놓치고 말랴. 그래서 지심귀명례 - 목숨을 던지는 각오로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일체 행의 으뜸이며 만공덕의 어머니라고 한다. 같은 신심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 같아서 어떤 마장도 어떤 병고역년도 덤벼들지 못한다고 한다. 믿음은 또 번뇌를 끊고 육근을 청정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깨달음을 실어내린다고 한다. 말하자면 믿음은 인간이 좋아하는 여러 보화 중에서도 제일 가는 보화인 셈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세가지 복을 원한다. 건강, 안온, 장수이다. 따라서 이 세가지를 방해하는 적 - 늙음, 질병, 사망을 두려워한다. 12인연경에 보면 이 세가지 적을 피하는 길은 불·법·승 삼보에 귀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바로 지심귀명례이다. 그러나 입으로만 '지심귀명례' 한다면 수만번, 아니 평생을 외어도 그것은 다만 입 운동일 뿐이다.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지심귀명례는 깊은 믿음이 전개될 때 공덕이 있다. 진리를 믿고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믿고, 법을 따름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고, 승이 늘 빠르게 자리타함을 굳게 믿을 때 비로소 공덕이 있는 법이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약하거나, 다만 외례적일 때는 '지심귀명례'가 거꾸로 법을 업수이 여기고 자신을 비하하는 꼴이 된다. 맹구우목(盲龜偶木)에 비유할만큼 인간의 몸 받기가 어렵다했는데 그 어려운 기회에 불법을 만나고도

그것이 소중할 줄 모르니 결국 자신을 업신여기는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법을 비하하는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사람은 모처럼 보물창고에 들어갔다가 빈 손으로 나오는 사람과 다르지 않으니 참으로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믿음이란 자극한 마음(지심포심), 깊은마음(심심深心), 견고한 마음 (견심堅心) 곧은 마음(직심直心), 물러서지 않는 마음(바탕이 된다. 삼보를 향한 지심귀명례가 그런 마음으로 사무칠때 비로소 우리는 법요식 때마다, 지심귀명례를 할때마다 무량공덕을 받게되는 것이다.

보물창고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여러식은 사람이 되어서야 어찌 진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하랴.

협찬: 윤명기